

“ESG 혁신기업에 투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지속성장 ESG 펀드’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다. 최근 기업 경영 방침으로 ESG가 급부상하면서 금융상품 투자에 이들 요소를 반영하는 사회책임투자(SRI)도 활성화되고 있다. ESG 투자는 비재무적 성과 요소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만큼 기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자산운용사들은 ESG 투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시작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 투자 대안이 될 상품으로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ESG 등급이 'B' 이상인 기업과 ESG 평가점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에 선별 투자한다. 그리고 투자신탁재산 70% 이상을 가치 투자 운용 철학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유니버스 구성 시 ESG 전문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ESG 등급을 참고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적용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ESG 투자전략 기법의 하나로, 일부 최악산업(술·담배·도박·무기

등)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ESG 기준에 맞지 않는 산업과 기업 등을 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초과 성과를 창출하고자 ESG 모넨텀(동력) 전략을 가미했다. ESG 등급 및 점수가 크게 상향하는 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서스틴베스트와 협력을 통해 전략 개발 및 유효성 검증을 마쳤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관계자는 “오랜 기간 기업에 대한 바텀업(bottom-up) 리서치를 바탕으로 펀드를 운용해 왔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지배구조 및 주주정책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어 어느 ESG 펀드보다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ESG 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고객 및 주주 가치 제고 등 운용사 자체의 기업 문화 재정립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